

# 고금리에·적금 만기 도래... '100조 재유치' 경쟁 막오르나

### '레고랜드발 수신 전쟁' 1년... 내달 본격 만기 도래 은행권 年 4%대·2금융권 8%대 적금 특판 등 내놔 금융당국, 과도한 금리 경쟁·'머니 무브' 점점 강화

지난해 하반기 역대 최대 수준의 고금리로 끌어 모은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 도래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수신 경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불안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10월 중순부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재예치 상황 및 금리 수준에 대한 '일일 상황 보고'를 받는 등 '머니무브' (대규모 자금 이동)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각년 고금리 상품들 대거 만기...2금융권 특판

경쟁 '꿈틀' =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권 수신 잔액은 96조2504억원 늘었다. 여기에는 은행권의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과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수신 증가액이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확보 경쟁까지 불붙으며 금융권 예·적금 금리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은행권은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

가막히자 예금 금리를 연 5%대까지 높였고, 2금융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연 6%대 중반에 이르는 특판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만큼 대규모 자금 재유치를 놓고 금융권 수신금리 경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은행권 조달 환경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작년 고금리 시기에 조달한) 예금 만기가 대거 도래해 서민금융기관을 포함한 은행권 전반의 수신환경과 은행채 발행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연 4%대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하는 등 수신 금리는 벌써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한 움직임이지만 뭉치면 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

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 (최고 연 4.15%)과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연 4.10%), DGB대구은행 (연 4.05%),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 (연 4.02%),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 (연 4.0%),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연 4.0%) 등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대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2금융권 역시 고금리 특판 판매를 늘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 5%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충청권의 한 금고는 다음 주부터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판도 내놓는다. <금융당국, 예의주시...내달부터 2금융권 일일 상황 보고> 금융당국도 대규모 만기 도래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다음 달 중순부터 재유치 상황과 금리 수준을 매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금융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상 대규모 자금 재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튀는' 금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이 지나친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안 그래도 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적인 예수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예수금 총액 동향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등을 파악해 이상 징후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저출산 등 사회문제,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내 최대 'SV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 “정부·지자체, 사회적기업 등 성장 촉진... 기업, 시너지 창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부문이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1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SV) 관련 국내 최대 민간 축제 '소셜벤처커펀트(SOVAC) 2023'의 첫 'SV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19년 최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SOVAC은 이번 5회째 행사에서 대한상의의 신기업 가정실험회(ERT)와 공동으로 SV 리더스 서밋을 마련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들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첫 서밋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사회적

업·소셜벤처, 학계 등 각계 리더 130여명이 참석해 효율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제도적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다. 민간·공공 부문 협회 환경 조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문제 해결사”인 사회적기업·소셜벤처·NPO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문제 해결의 속도와 크기는 더욱 빨라지고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이들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할 솔루션을, 기업은 소셜벤처·사회적기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은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나아가 ERT 소속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다함께 나누 프로젝트’, 대한상의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 등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와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해법 모색에 사회 각계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광주은행 '영광군 인재육성' 3천만원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영광군청을 찾아 '영광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에 장학기금 3000만원을 출연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도 장학기금을 출연해 영광군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쓴다. 강중만 영광군수는 “매년 인재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된 장학금은 영광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특별한 추석 선물하세요 광주신세계는 소고기와 과일 등 인기 명절 선물 이외에 차별화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추석 GIFT연합전'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하 1층 연결통로에 위치한 스페셜스테이지에서 '주방 추석 GIFT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1층 이벤트홀에서는 의류, 핸드백, 양말, 신발 등 다양한 브랜드의 패션상품을 판매한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닥스 매장 직원이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셔츠와 타이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경총, 1620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 윤병태 나주시장 초청

광주경총(회장 양진석·최호원 회장)은 지난 15일 윤병태 나주시장을 초청해 162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은 “나주시 비전과 기업 동반 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나주는 삼국시대부터 호남의 중심이자 국가 세력의 50%를 충당하는 지역으로, 항일의병운동 등 국가 위기상황에는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500만 나주 관광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영산강 국가정원, 나주천 생태물길, 3백리 자연

길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인구감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 광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시설과 기관을 유치하는 등 미래 첨단과학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위해 상상형 에너지생태계 구축과 취업청년 임대주택 무상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22일 ‘최근 북한 정세와 동북아시아 경제 동향’을 주제로 162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입주기업 모집

### 전남도, 20일까지

전남도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주 대상은 면역항암제 등 암 치료 관련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업체(관련 연구실적 보유 필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화순백신포구에 입주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사업’으로 구축, 지난 6월 준공해 장비 설치, 시험가동 등을 거쳐 내달 4일 개소식을 연다. 입주를 바라는 기업은 한국자산공사(www.onbid.co.kr)에 등록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 기업에는 독립된 연구실과 연구원실을 임대형식으로 제공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파이프라인 발굴·비밀상·임상시험, 사업화 등), 고가 연구장비 활용서비스, 실험동물연구실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암·치매·희귀병 등 난치성질환 극복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기술 개발, 면역치료 비밀상 실험 및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시제품화가 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지원한다. 주요 시설은 실험동물연구실(1층), 개방형실험실 및 공용장비실(2층), 기업부설연구소(3층) 등이다. 특히 대학, 병원, 기업과 함께 면역치료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운영한다. 화순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스텍,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기관·기업이 협업체 연구를 진행한다. 대학 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부설연구소를 활용해 임상협업이 가능하다. 또 화순백신포구의 생물의약연구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해 위탁생산(CMO)까지 가능하다. 전국 어느 곳에서든 찾아보기 힘든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기반시설이다. /유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8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7	17	18	38	44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1,073,277,473	2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1,427,879	80
3	5개 숫자일치				1,185,316	3,4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56,670
5	3개 숫자일치				5,000	2,475,529

## 소상공인, 도시가스료 분할 납부 가능

###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